

#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조민지\*

1. 머리말
2. 기록, 기록관, 그리고 아키비스트
  - 2.1. 기억의 재현과 기록
  - 2.2. 기록관과 아키비스트의 프리즘
3.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의 본질과 새로운 방향성 모색
  - 3.1. 기록의 정리·기술 과정의 문제 인식
  - 3.2. 기록 기술 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4. 맺음말
  - 기억될 기록과 기록되는 기억

\* 한국의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주요 논저: 「미국대통령기록관의 역기능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2009;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2006

## [국문초록]

기록관은 과거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가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장소이기도 한다. 이런 구조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관심에 종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현재의 지배적인 의사소통매체와도 연관을 맺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의 맥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에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원질서 원칙과 출처 존중의 원칙에 따라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한다. 이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란 무엇보다도 기록의 진본성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의 설명을 통해 전체 맥락 안에 위치시키고 내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리와 기술이 아키비스트의 가장 고유한 역할이지만, 그리고 정리와 기술을 통한 아키비스트의 기록 원형에 대한 증거가 아무리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출처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고수된다 하더라도, 기록 전반의 단계를 통해 미치는 아키비스트의 영향을 막을 수는 없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관자로 정의된 아키비스트들이 평가 선별하는 기록물에 대해, 생산하는 검색도구에 대해, 그리고 기록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현으로서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을 보는 여전히 변치 않는 관점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 고도의 기술 환경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그리고 아카이브즈의 국가 중심적이고 단정적인 구조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기록, 기억, 기록관, 과거, 재현, 정리와 기술, 진본성, 아키비스트 주관성, 공유, 개방**

## 1. 머리말

젠킨슨이 기록관리편람(*A Manual of Archival Administration*)으로 인류에게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설파한 지 꼬박 90년이 되어간다. 전통적 모더니스트인 영국의 젠킨슨에게 있어서 아키비스트는 공정하고 수동적인 보관자였다. 기록과 증거의 정확하고 확실한 관계를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보존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인 중재자로 아키비스트를 정의하고 있다.<sup>1)</sup> 젠킨슨 사후 많은 것이 변했다. 특히 기록을 전달하는 매체와 정보 장르의 전환은 젠킨슨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량의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담론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다.

인간 중심의 종이기록 환경에서 기술 중심의 디지털 도큐먼트로의 전환은 사실상 기록의 개념 자체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으며, 기록관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획득, 재현, 보존하려는 능력을 쇠신하고, 또한 다양하게 도전해야 하는 현실을 이끌어냈다. 이제는 보존되는 기록이란 그저 정적으로 고정된 도큐먼트가 아니라 오히려 연속적인 생산, 재생산,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역동적인 대상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sup>2)</sup> 비록 정치적·조직적인 구조가 변화하고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변화함에 있어서 그 기록 수단이나 기술을 초월하는 영속적인 원칙을 기록이 어느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반

---

1) Hilary Jenkinson, *A Manual of Archival Administration*, 1922, pp.83-84, Richard Stapleton, "Jenkinson and Schellenberg: A Comparison", *Archivaria* 17, 1983, pp.80-81에서 재인용

2) Margaret Hedstrom, "Archives, Memory, and Interfaces with the Past", *Archival Science* 2, 2002, p.30

적 함의에 이르지 못했지만,<sup>3)</sup> 이러한 전자기록 환경 하에서의 현대기록학 담론에서도 진본성은 여전히 기록의 근간이며 또한 아키비스트의 객관성과 중립성은 사실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다. 그러므로 종이기반 기록 논의의 중심에 있는 쟁점이 강조한 아키비스트 아이덴티티의 본질은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관자로 정의된 이러한 아키비스트들이 평가 선별하는 기록물에 대해, 생산하는 검색도구에 대해, 그리고 기록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현으로서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을 보는 여전히 변치 않는 관점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아키비스트의 개념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아키비스트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가치를 주입한다.”<sup>4)</sup>라는 테리 쿡(Terry Cook)의 최근 비평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기록의 평가와 선별은 아키비스트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이다. 아키비스트는 평가와 선별을 통해 기록 유산으로부터 미래를 구성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키비스트는 이런 식의 기록과 기록관을 창출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누구를 보이게 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할지를 결정한다. 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적 해석의 주요 행위는 역사가가 사료 비판을 위해 기록물 박스를 열 때가 아니라, 아키비스트가 98%의 기록물을 버리고 그 나머지를 영구보존 하기 위해 기록물을 선택할 때 발생한다.<sup>5)</sup> 이렇듯 아키비스트가 평가 선별이라는 작업

3) Margaret Hedstrom, "Archives, Memory, and Interfaces with the Past", p.22

4) Michelle Light and Tom Hyry, "Colophons and Annotations: New Directions for the Finding Aids," *The American Archivist* 65, 2002, p.218.

5) Terry Cook, "Remembering the Future: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in *Archives, Documentations, and Institutions of Social*

을 통해 기록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정리와 기술이라는 조직화 작업을 통해 미치는 영향력 또한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정리와 기술이 아키비스트의 가장 고유한 역할이지만, 그리고 정리와 기술을 통한 아키비스트의 기록 원형에 대한 중재가 아무리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출처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고수된다 하더라도, 기록 전반의 단계를 통해 미치는 아키비스트의 영향을 막을 수는 없다.<sup>6)</sup> 아키비스트의 정리 기술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물은 과연 단순히 사회 구조의 산물인 것인가? 이렇게 아키비스트의 프리즘을 통해 재현된 기억은 과연 공정하고 가치중립적인가? 이러한 행위의 부산물인 기록은 과연 불편부당성을 담보로 하여 재가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자기록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변했고, 최신의 web 2.0 환경에서 3.0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어 있는 고도의 기술 환경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그리고 아카이브즈의 국가 중심적이고 단정적인 구조에 대한 재고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Memory: Essays from the Sawyer Semina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2005, p.171.

6) Michelle Light and Tom Hyry, "Colophons and Annotations: New Directions for the Finding Aids," *The American Archivist* 65, 2002, p.220.

## 2. 기록, 기록관, 그리고 아키비스트

### 2.1.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억은 단순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타협을 하고, 매개되고 적응되는 것이다. 개인과 문화는 언어적, 조형적, 제의적 반복이라는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교호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개인과 문화, 이 양자는 신체 밖의 저장매체와 문화적 행위의 도움으로 그들의 기억을 유기적으로 엮어간다. 이것 없이는 세대를 넘고 시대를 넘어 통하는 어떤 기억도 형성될 수 없다. 동시에 이 말은 이러한 매체들의 변화된 발전 상황과 더불어 기억의 저장 방법 또한 필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sup>7)</sup>

"글자의 발명은 이집트인들을 현명하고 기억력이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테우스(Theuth)신이 말하자 사무스(Thamus)왕은,

"이 발명이 배우는 자의 영혼에 망각을 불러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외재된 기억에 의존할 것이며 자신이 직접 기억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억을 보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억을 돕기보다는 회상을 돕고, 너의 제자들에게 진실보다는 진실 닮음을 줄 것이다."

-플라톤(Plato) 『파에드로스 (Phaedrus)』 중에서

---

7)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 1999, 기억의 공간, 변학수 외 옮김, 경북대 출판부, 2003, p.23.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보여 준 쓰기에 대한 이러한 극도의 불안감을 뒤로 하고 인류는 결국, 기억의 저장매체<sup>8)</sup>로서 문자사용을 내면화하였다. 문자로 쓰인 기록에는 기억에 의존하여 입으로 한 말 이상으로 먼 과거의 일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힘이 있으며, 특히 법정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보통 문자에 익숙한 현대인은 생각한다. 그러나 문자를 알았으나 그것이 충분히 내면화되지 않았던 이전의 여러 문화에서는 종종 정반대로 생각되어왔다.

문자 기록에 대한 신용의 정도는 확실히 문화에 따라 가지각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억을 토대로 말로 하는 증언이 문자로 쓰인 기록보다 훨씬 신용이 강한 것이었다. 기록 그 자체가 진본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쓰기 자체에 의해서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대상(문서 묶음에 꽂아둔 칼 등)에 의해서 외견으로 판단되고 증명되었다.<sup>9)</sup> 그러나 사실 앞서 말한 플라톤의 음성 중심주의도 그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성을 알릴 수 있었다. 문자를 도구로 하여 텍스트로 써서 자신의 확실한 주장과 옹호를 그대로 남길 수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쓰기는 어떠한 발명보다 더욱 강하게 인간의 의식을 변형시켜왔다. 문자에 익숙한 정신은 쓰기가 없었다면 실제로 무엇을 쓸 때뿐 아니라 말하려고 생각을 간추릴 때조차도 지금처럼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sup>10)</sup> 기록은 우리에게 그렇게 왔다.

8) 혹은 인공 기억으로서의 보조수단. 기억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rauwe Draaisma, *Metaphors of Memory*, Historische Uitgeverij, 1995, 기억의 메타포, 정준형 옮김, 에코리브르, 2006, 1장 참고.

9)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Routledge, 1982,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외 옮김, 문예출판사, 2009, p.156.

10) Walter J. Ong, *Ibid.*, p.131.

현재의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왔을까? 현재는 과거를 의식 속에 내면화하여 타자화 할 때, 그 기억과 망각이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 가능하다. 결국 기억이란 역사 속에서의 지속적인 존재의 문제이다. 특히 과거라는 것은 기록을 비롯한 여러 보조 매체를 통해서 기억되었고,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우리 삶을 규정한다. 그렇게 규정된 현재의 삶은 의식·무의식적으로 행한 기억의 재현에 의해 과거로 다시 타자화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는 결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으로 표상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그 현실의 관계로서, 상호작용하고 융합하는 기반으로, 기록이라는 매체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개인의 혹은 집단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2.2. 기록관과 아키비스트의 프리즘

시간은 인간에게 많은 흔적을 남긴다. 그것은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영역에서 우리가 현재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흔적을 남기며 과거가 된다. 그리고 그 과거는 고정불변의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현재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sup>11)</sup> 여기에 문자로 된 기록물은 사용이 다 된 후에도 자연적인 산물처럼 썩지 않기 때문에 특히 수집되고 보관될 수 있는 잔여물이 된다. 이러한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은 외적인 저장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기록체계들인데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억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런 기억을 살아있는 기억보유자들과는 무관하게 고정시키는 문자의 기술에 입은 혜택이 크다. 그러므

11) David Lowenthal,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 한명숙 옮김, 개마고원, 2006, p.810

로 관리나 경영을 위한 기억으로서의 기록관이 아닌, 과거의 증거물로서의 기록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기억의 재현을 위해 구성되고 조직된 기록관은 원래 그대로의 기억을 재현해내지는 못한다. 즉, 기록관에서 아무리 일관성 있게 기억을 재현하는 방법론을 갖고 조직하더라도 그 과거는 결국 현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과거는 실재하지만 실제로 있는 그대로 알려질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기억되지 않고 모든 것이 기록될 수 없으므로 기록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기억되고 선택적으로 망각된다. 다시 말해 기록관을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소장 기록의 통제가 아닌 기억의 통제이다.<sup>13)</sup> 이렇듯 기록의 생사여탈권과 기억의 외재화라는 막중한 임무가 아키비스트에게 주어져 있다.

물론 아키비스트는 어떤 기록이 남겨지느냐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자가 아니다. 기록물의 보존을 형성하는 다수의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정치적, 예산적 압력 가운데 소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아키비스트는 역사가의 시녀라 지칭하며 스스로 소극적인 역할로 폄하하거나 중립성을 이유로 자신의 가치를 불투명하게 가두어 왔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키비스트는 과거의 구성과 재구성에 알게 모르게 깊숙이 간여해왔다. 그러므로 기록을 선별하여 조직화한 후 기록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즉 어떤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것을 망각할 것인가를 책임진 아키비스트는 기록과 기록이용자의 접점이다. 그러나 아키비스트는 결코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며 이것은 언제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또, 강요받아온 기록

---

12)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 1999, 기억의 공간, 변학수 외 옮김, 경북대 출판부, 2003, p.447.

13)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 Iibd.,, p.450.

관의 본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어리(Patrick Geary)가 중세시대 서기나 성직자가 당대의 기록이 구성되는데 큰 소임을 다하면서, 당시의 인물과 사건에 관한 기억뿐만 아니라 망각을 책임졌던 이들에게 ‘기억의 유령(phantoms of remembrance)<sup>14)</sup>이라 이름 한 것은 이러한 기록관의 불가시성을 잘 설명한다. 물론 니체(Friedrich Nietzsche)가 강조한 바대로, 망각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만큼이다 중요하다.<sup>15)</sup> 그러나 기록이 기록일 수 있도록 작업한 아키비스트가 어떤 지적인 배경을 가졌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여 이러한 내용의 설명을 단 기록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기록에 가한 해석적 틀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데리다(Jacque Derrida)는 반투명한 기록관의 유령과 관련 하여, 유령과 대면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sup>16)</sup> 특히 데리다는 안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고 또 말이 없는 것을 말하게 하려면 그 유령을 향해 말해야 한다고 했다. 기록관이라는 반투명한 유령은 아키비스트와 유영하며 기록이 기록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기록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 기록화의 형식이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기술적 수단과 시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 
- 14) Patrick Geary, *Phantoms of Remembrance*, Princeton, 1994, Terry Cook, "Remembering the Future: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in *Archives, Documentations,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Essays from the Sawyer Semina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2005, p.170.에서 재인용
- 15) Patrick Geary, "Medieval Archivists as Authors, Social Memory and Archival Memory" in *Archives, Documentations,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Essays from the Sawyer Semina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2005, p.106.
- 16) Jacque Derrida,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6, Tom Nesmith, "Still Fuzzy, but More Accurate: Some Thoughts on the "Ghosts" of Archival Theory," *Archivaria* 47, 1999, Terry Cook, "Remembering the Future: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2005, p.172 에서 재인용

모든 것을 의미한다. 기록이란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욕구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 낸 산물이거나 사회 조직에서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수의 공동작업의 결과일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아카이브즈의 불가시성은 경계로서 작용하지만 사람, 정보, 생각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투과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키비스트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기록을 조직화하고 컬렉션을 구축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기억은 그 틀대로 선택되고 조직되고 구축된다고 할 수 있겠다. 케틀라르(Eric Ketelaar)가 강조한 “아키비스트는 맥락으로 재맥락화 시킨다”<sup>18)</sup>는 의미와 상통한다. 시대가 변했고 기술이 변했다.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고도의 기술 환경 속에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수동적으로 주워 담는 것에 만족하던 시기는 지났다. 아키비스트의 프리즘으로 만들어진 기록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또 그렇게 주어진 대로 이용자가 받아들이는 기존의 틀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기록관은 과거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가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장소이기도 한다. 이런 구조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관심에 종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현재의 지배적인 의사소통매체와 기록 기술(technology)에 의한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sup>19)</sup> 이전에는 도저히 기록화가 가능하지 않던 매체들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기록으로 남겨지고 보존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19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민족주의를 근대 민족국가의 건국 이데올로기로서 파악하고, 그

17) Margaret Hedstrom, "Archives, Memory, and Interfaces with the Past", *Archival Science* 2, 2002, p.25.

18) Eric Ketelaar, "Tacit Narratives: The Meaning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2001, p.137.

19)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 2003, p.25.

것이 기록에 의존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피터슨(Trudy Peterson)은 민족주의가 국립기록보존소에 끼칠 수 있는 기형적인 형태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sup>20)</sup> 이는 아키비스트가 기록 조직화에 관여하면서 기억의 상호 작용 뿐만 아니라 기억을 상호 통과시키며 사회적 권력을 합법적으로 증거하는 역할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특히 아키비스트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관자로 존재성을 부여받은 전통적인 접근 하에서도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는 국가기관으로서, 혹은 국가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서 권력이 있는 기록생산자와 주류 문화를 지원하는 것을 강하게 선호하였다.<sup>21)</sup> 이러한 접근 하에서는 국가의 공적인 내러티브에 대하여 사회의 개인, 단체, 실제로는 국가와 맺는 관계나 국가에 대한 영향 등에 관련하여 기록되는 이야기 그 이상을 넘어서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증거와 진본성의 법칙에 따라서 현재를 경험하고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여타 매체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러한 법칙들에 기인하는 보다 우호적 기록들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아키비스트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긍정적이고도 과학적인 가치관을 통해 인식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선택과 아카이빙을 제지당해 왔다.<sup>22)</sup> 불편부당성을 덕목으로 가지지만 아키비스트라는 인간이

20) Trudy H. Peterson, 민족주의와 국립기록보존소에 관한 불쾌한 진실, 이상민 옮김, 『기록학연구』 4, 2001, 오동석, 기록관의 국가·사회적 역할-민족주의·초민족주의와 집단적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p.8에서 재인용

21) Terry Cook, "Remembering the Future: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in *Archives, Documentations,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Essays from the Sawyer Semina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2005, p.173.

22) Terry Cook, *Ibid.*, p.173.

내리는 해석은 결코 중립적이 아니고,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제도도 중립적이지 않다. 기록관은 박물관, 기념관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억보다는 집단적 기억과 상호작용한다. 문화라는 것은,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에 유용한 지적인 도구가 된다. 그 문화를 설명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기록관의 기록 조직화가 있으며, 물리적으로 고착된 기록과 말로 채록된 기억이 모두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기억은 아키비스트가 조직화하고 아키비스트가 전달한다. 프롬(Christopher J. Prom)에 따르면<sup>23)</sup>, 그 중에 정리, 기술, 보존, 이용과 같은 프로세싱 작업은 기록화 작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가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기록관 전체에 대한 해당 컬렉션의 물리적·지적 제어를 촉진시키느냐 혹은 사장시키느냐가 이 과정에서 갈린다.

### 3.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의 본질과 새로운 방향성 모색

#### 3.1. 기록의 정리·기술 과정의 문제 인식

국제기술표준인 ISAD(G)에 따르면,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란 "기록 자료를 확인한 후에 그것을 생산한 맥락과 기록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하는 과정에

---

23) Christopher J. Prom, "Optimum Access? Processing in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73, 2010, p.146.

서....기록과 그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록 기술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내러티브 구조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즉, 행정 역사나 생애에 대한 기술은 기록의 내용에 대한 맥락적 단초를 제공하며, 그 맥락 정보에서부터 품이나 시리즈의 내용에 대한 추론 도구를 제공한다. 아키비스트는 기술에 사용된 통제된 용어으로써 상자와 폴더, 아이템의 내용을 목록화하여 부차적인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한다.<sup>24)</sup> 그러므로 이러한 기록 기술을 통해 생산된 검색도구는 소장 기록물을 찾고 이해하기 위한 절대적 접근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도구를 생산해내는 아키비스트는 중재자다. 기록 생산자와 보관소 사이의 중재자요, 기록관과 이용자 사이의, 그리고 과거 인식과 현존 문서 사이의 중재자이다. 전통적 관점을 빌자면, 과거와 현재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가교인 것이다. 그러나 아키비스트는 보이지 않는 가교이긴 하지만 반드시 전통적으로 옹호해 오거나 인식되어 오던 식의 중립적이거나 공정한 중재자는 아닐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키비스트가 모든 기록 처리 단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주입하게 됨을 피할 수는 없다.<sup>25)</sup> 공적 도큐멘테이션 과정에서 특권체인 기록관이 권력 관계나 정치 구조에 따라 생산, 선별, 배제를 행하는 곳이 기록관이라는 비판<sup>26)</sup>은 이를 뒷받침 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또한 1970년대에 하위

24) Margaret Hedstrom, "Archives, Memory, and Interfaces with the Past", *Archival Science* 2, 2002, p.32.

25) Michelle Light and Tom Hyry, "Colophons and Annotations: New Directions for the Finding Aids," *The American Archivist* 65, 2002, p.218.

26) Terry Cook, "Remembering the Future: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in *Archives, Documentations,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Essays from the Sawyer Semina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2005, p.11.

드 진(Howard Zinn)이 이미 지적한 바대로, 아키비스트는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이나 소수 민족, 반체제 인사,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 다큐멘팅에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들이 배제되었던 것 또한 중립성과 무관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다.<sup>27)</sup> 더불어, 데리다가 일관성 있게 주장한 대로 고통이 따랐던, 폭력적이었던, 그리고 사회의 여러 (어두운)이면들이 기록관에서 기록으로 조직화되지 못했음은 사실이다.<sup>28)</sup> 선별 평가나 도큐멘테이션 과정은 차치하고, 우선 본 논문의 주제인 기록 기술에 한정하여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면, 먼저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과 기록 진본성의 상관관계, 그리고 아키비스트의 원질서 존중의 원칙 적용에 대한 것을 들 수 있겠다.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란 무엇보다도 기록의 진본성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의 설명을 통해 전체 맥락 안에 위치시키고 내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정한 내용, 맥락, 구조를 가진 기록에게는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란 속성을 가진다.<sup>29)</sup> 특히 진본성은 기록이 그 취지와 맞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록의 정체성(생산자가 누구인가)과 무결성(기록이 처음 생산된 이래 현재까지 본질적 속성을 대신하는 어떤 대체물이 존재했었는지의 여부)와 연관된다. 특히 기록의 진본성과 기록물 기술 간의 관계는 개별 기록물들로부터 기록물 전체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풍(fond)까지

27) Howard Zinn, "Secrecy, Archives, and Public Interest," in *The Howard Zinn Reader*, Seven Stories Press, 1997, p.522, Michelle Light and Tom Hyry, op. cit., p.218.에서 재인용

28) Carolyn Hamilton ed., *Refiguring the Archive*, Kluwer Academic Public Publishers, 1998, p.42-53.

29)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5489-1(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 기록 관리 표준), 2001, 7.2.이하 항목

모든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초월하는 아이덴티티와 무결성의 보호가 요청되는 것이 기록의 진본성이며, 기록이 될 문서의 자원을 읽고 분석하는 모든 학문 영역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기록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진본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진본성을 위해서는 무결성 확보 전략이 선결과제이다. 매디슨(Gary Madison)에 따르면<sup>31)</sup>, 사실상 기록 원문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원문을 생산하는 것이다. 읽는 것이 바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기록의 해석자로서의 아키비스트들은 기록을 쓰거나 생산하는 것을 돕는다. 기록 이해의 과정에서 기록 기술이란 작업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이 때에 무결성을 보장받아야 할 기록의 진본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기록이 생산되는, 조직화되는 과정에 대한 흔적과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기록관의 정리·기술 과정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맥락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원질서 원칙과 출처 존중의 원칙을 따른다. 이는 분명, 맥락을 따라 안전하게 진본성을 지키게 하여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원질서라는 것이 진정으로 정확히 원질서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sup>32)</sup>, 아무리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도 아키비스트가 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원질서"라 한다면, 그 기록물의 생산 당시에는 지금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정도까지의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고 구조적인 "

---

30) Heather MacNeil, "Picking our Text:: Archival Description, Authenticity, and the Archivist as Editor," *The American Archivist* 68, 2005, p.265-268. 정리

31) Tom Nesmith, *Seeing Archives: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llectual Place of Archives*, p.19에서 재인용

32) Michelle Light and Tom Hyry, "Colophons and Annotations: New Directions for the Finding Aids," *The American Archivist* 65, 2002, p.220

원질서"를 원래는 갖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여러 질서 혹은 무질서도 존재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키비스트는 하나의 "원질서"만을 추구해야 한다. 더구나 쉽게 원질서를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준"에 따라서 당연히 원질서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 예로, 더 이상 의미체로서 존재하지 않지만 소장물의 전체적인 구조화를 위해 아키비스트가 재구성할 밖에 없는 풍(fonds) 등은 원생산자의 의도가 어떤 식으로든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기록관 현장에서는 물론 마땅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이때의 아키비스트도 전적으로 중립적인가? 오히려 에디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문자로 된 표시는 사물로서만 아니라 그것의 의미, 그리고 어쩌면 사실 부합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언어적 상징으로서도 무리하게 끼어든다. 일시적으로 “상실” 되는 것이 지나치게 많이 아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종종 있다.<sup>34)</sup>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보존과 관리, 이용을 위한 조직화를 해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한다. 기록에 함몰되는 동안 원래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브라이언 브로스만(Brian Brothman)에 의하면 기록보관자나 아키비스트는 어떤 것을 적절한 위치에 놓고, 또 적절한 위치를 만들어냄으로써 가치의 순서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상당수의 암묵적 내러티브가 분류하거나 코드를 만들거나 기술(description)하는 작업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듯 확증하고 분류하는 일은 그 유물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줄 지 모

---

33) Heather MacNeil, "Picking our Text:: Archival Description, Authenticity, and the Archivist as Editor," *The American Archivist* 68, 2005, p. 270.

34) Beazley, "Popularity: its benefits and risks", David Lowenthal,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 한명숙 옮김, 개마고원, 2006, p.590.에서 재인용

르지만 종종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방해하는 때가 있다.<sup>35)</sup> 그렇다고 아키비스트가 제공한 기록 정보가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아키비스트는 진실을 전제로 기록을 조직하며 검색 도구로 재가공할 수밖에 없다. 아키비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기록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단지, 중립성이나 불편부당성에 자신의 가치를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기록의 기술 표준은 그 자체로 획일적이고 효과적인 조직화를 보장하지만,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통한 업무 처리는 분명히 그 설명책임성을 잘 보장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주관성과 영향력을 은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과거의 현재에 생산된 기록을 현재의 아키비스트가 조직하고, 그 기록이 미래의 현재에는 그 때의 잣대로 다시 평가될 것이고, 다시 이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이 어떤 과정으로 아카이빙 되었는지 보여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처에 옛 것이 유행하고 학생들은 지방사를 연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억을 조사한다. 대중매체에는 역사소설이나 옛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불러나온 과거는 대부분 현재의 작품임이 분명하다. 아키비스트가 아무리 양심껏 보존하고 아무리 진심으로 복원하다해도, 그리고 지나간 시간 속에 아무리 깊이 침잠해 들어간다 해도, 과거의 삶은 지금의 삶과는 아주 다른 존재 방식과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렌즈를 통해 과거를 보고 기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도구로 과거를 주조하고 있다. 과거는 그 특징이 오늘의 기호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 생소함은 그 흔적에 대한 우

---

35) David Lowenthal,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 한명숙 옮김, 개마고원, 2006, p.594.

리의 보존 방식에 의해 길들여진 낯선 나라다. 보존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심화시켰지만, 그것의 창조적 활용을 방해했다.<sup>36)</sup> 아키비스트가 기록의 가치와 이용가능성을 위해 설명하며 가하는 기록 기술 작업이라는 친절이 자칫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코젤렉(Reinhard Koselleck)에 의하면, 각 계층과 집단의 이해에 따라 엇갈리며 나타나는 미래와 과거의 시점들이 현재를 규정하게 되고, 따라서 현재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미래의) 과거로서 혹은 과거 세계의 (지나간) 미래로서 인식된다.<sup>37)</sup>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는 미래의 과거다. 아키비스트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남겨진 기록물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현재에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기고 또한 우리의 혹은 그들의 집단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규정하는 데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전제해야 한다.

### 3.2.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기록물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란 결국, 아키비스트가 대상물에 대해 직접 가하는 간접적인 설명이다. 그러므로 기록 기술은 기록물과 이용자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터페이스이고, 기록물이 어떻게 비쳐지고, 어떻게 설명되고, 예증되고, 평가되는 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많은 지시물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추론적일 때가 있다. 역사를 구하는 표지가 있는가하면, 역사를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표지가 있다. 유형의 과거에 대한 인식은

36) David Lowenthal,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pp.13-15.정리

37) Reinhart Koselleck, *Vergangene Zukunft zur Semantik Geschichtlichen Zeiten*, 1979, 지나간 미래, 한철 읍김, 문학동네, 1998, p.423.

그것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알려주는 표시에 의해 또렷해질 뿐만 아니라 형태를 갖춘다. 이 유물을 청송하거나 저 유물에 대한 접근을 막는 표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느끼는 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단순한 인지는 눈에 보이는 과거를 변형시킨다. 확증하고 분류하는 일은 유물이 된 대상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해줄지 모르지만 종종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방해하며, 그리하여 과거에 대한 사실을 얻기 위해 과거와 교류하는 것을 희생하게 만들 때가 있다.<sup>38)</sup> 그럼에도 우리는 맡겨진 기록을 조직하고 설명하여 미래에 "전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기록물에게 어떤 적당한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

첫째, 설명해야 한다. 자신 업무의 해석적 성격에 직면하여 그 측면을 모호하게 하거나 감추기 보다는 해석적 행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자신의 기록 기술을 하기 위해 획득된 정보나 조직적·사회적 수준에서 운용되는 해석 프레임에 관하여 가능한 많은 "흔적"을 남겨야 한다. 헤드스트롬(Margaret Hedstrom)에 의하면, 아키비스트가 자신이 활동하는 곳의 권력 구조를 무시한다거나 그 구조의 해석적 힘을 부인해서도 안되며, 아키비스트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현재 혹은 미래의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키비스트가 남겨 놓은 해석적 틀을 통해 이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기록 증거의 신뢰성이나 중요성을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재현의 완전함이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은 기록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를 잡아내는 행위를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sup>39)</sup> ICA의 기록물 기술 국제 표

---

38) David Lowenthal,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 한명숙 옮김, 개마고원, 2006, pp.587-594. 정리

준(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of Archival Description)인 ISAD(G)에서도 기록의 기술과 관련된 행위는 기록의 생산 이전부터 기록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명기되어 있다.<sup>40)</sup> 기록화 행위를 설명하고 철저하게 흔적을 남겨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케틀라르(Eric Ketelaar)가 일찍이 주장한 아키발라이제이션(archivalization)이란 개념에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이 아키발라이제이션은 기록 포착 이전의 단계를 설명한 아키바이제이션(archivization)에 앞서는 또 다른 "진실의 순간" 즉, 사회적 혹은 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기록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의식적·무의식적 선택을 의미한다.<sup>41)</sup> 기록이 기록이기 위한 과정, 아키비스트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무엇을 참조했으며 무엇을 모르는가를 설명하는 방법론에 대한 하나의 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이란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흔적"이다.<sup>42)</sup> 다시 말해, 기록이란 단순히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객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분명히 내적 함의를 갖고 있으며 그 위에 기록 기술이란 것은 단순히 설명하고 이용자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식적이었던 혹은 무의식적이었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해석하여, 이용자가 가장 최선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 작업이 아키비스트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보다 궁극적인 기록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

39) Heather MacNeil, "Picking our Text:: Archival Description, Authenticity, and the Archivist as Editor," *The American Archivist* 68, 2005, p.269.

40) ICA Standards,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of Archival Description*, 2000, Introduction, 1.2.항

41) Eric Ketelaar, "Archivaliz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7, 1999, p.56.

42) Eric Ketelaar, "Tacit Narratives: The Meaning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2001, p.132.

아키비스트들이 재현하는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개방해야 한다. 물론 기록물 그 자체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관리 현장에서 기록물의 개방은 공개 정책과 함께 가므로 현실적으로 구조적인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개방은 앞선 첫 번째 대안인 “설명해야 한다”와 맞물린 것으로, 기록 기술 과정의 개방과 공유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이 기록전문직을 포기하거나 낮추어 보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기록의 정리, 기술 작업은 아키비스트 본연의 충실한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마땅한 작업이지만, 또한 개방함으로써 자신 작업의 완결성을 추구할 수 있다. 비록 대중화까지는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미시건 대학(University of Michigan) 벤틀리 라이브러리(Bentley Historical Library)에서 주도한 폴라 베어 익스피디션 디지털 컬렉션 (Polar Bear Expedition Digital Collection)<sup>43</sup>이나 영국 국립기록관 TNA(The National Archives)의 Moving Here<sup>44</sup>과 같은 콘텐츠는 기록 기술 개방이 갖는 이점과 가능성을 잘 드러내 주었다고 본다. 여기서는 아키비스트와 이용자가 상호 소통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기록 탐색도구로서의 기록 기술을 생산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법과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록 기술 생산자로서 아키비스트의 해석적 틀과 시각을 개방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아키비스트는 의식 및 주관을 갖는 인간이며, 중립적 전달자라기 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거나 경험하는 사회나 문화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

43) 웹페이지 <http://polarbears.si.umich.edu/>

44) 웹페이지 <http://www.movinghere.org.uk/>

참여의 시대에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서, 또한 지식 공유재로서 오픈 소스가 갖는 이점은 비단 기록기술(archival description) 뿐만 아니라 여러 주제 방면에서 보고되고 있다.<sup>45)</sup> 특히 현대사회와 같은 고도의 테크닉을 보장받은 시대에는 대규모 협업의 무기를 실현할 수 있을 개방과 공유라는 방법론이 갖는 기술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진화는 이 새로운 시대를 추진하는 가장 큰 힘이다.<sup>46)</sup> 물론 정보를 가진 집단 구성원이 언제나 정답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수가 가진 의견의 영향력에는 경계해야 할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보다는 집단이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실험 결과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sup>47)</sup> 그러나 대중이 적극적으로 정보 유통과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무분별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제어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개방이 갖는 장단점을 충분히 판별하여, 보다 정교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옮겨 가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카이브즈를 통한 집단기억 형성의 적극적인 매개자가 아키비스트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간주되어 온 불편부당함은 구조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역지사지와 상대주의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아키비스트가 받아들여야 하는 주요 논점은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그 기록을 보는 “시각”이라고

45)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례는 Don Tapscott and Anthony D. Williams, *Wikinomics*. 위키노믹스, 21세기 북스, 2007, 참조.

46) Don Tapscott and Anthony D. Williams, *Wikinomics*. 위키노믹스, 윤미나 옮김, 21세기 북스, 2007, p.38.

47) Cass R. Sunstein, *Why Societies Need Dissent*,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박지우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09, p.216-218 정리.

할 수 있다. 현존하는 것들이 예전에도 항상 그런 식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현재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권력자와 압제자들에 의해서 전 지구적 범위에서 끝없이 행해지는 과거의 이용과 남용을 고려한다면....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기록을 사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본분임을 인정해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레오폴드 폰 랑케의 말을 빌려서 다시 말하자면(비록 다른 의도로 쓰인 말이기 는 하지만),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sup>48)</sup> 그러나 무엇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이며 어떤 기준에 따를 것인가? 망각함으로써 기억되며, 기억됨으로써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는 막중한 목적과 과정이 아카이브즈에 있으며, 그 중심에 아키비스트가 있고 아키비스트의 시각과 인식이 있다.

이러한 아키비스트의 “시각”과 “인식”은 사실상 단순히 1년의 관련 훈련만으로 뒷받침될 수 없는 깊은 사고와 고민, 그리고 시간을 요한다. 최근 일련의 기록전문직의 자격완화 시도는 그런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격만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제도권에서도 충분하고 풍부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소양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업무 ‘과정’보다는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보다는 ‘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고는 그것이 제도권이었던 비제도권 이었던, 일련의 교육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틀이라고 본다.

---

48) Harvey J. Kaye, *The Powers of the Past: Reflections on the Crisis and the Promise of History*, 1991, 과거의 힘: 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오인영 옮김, 삼인, 2004, p.218.

## 4. 맺음말

### - 기억될 기록과 기록되는 기억

적어도 북미 대륙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1980년대까지도 아키비스트는 종종 그들 스스로를-자랑스럽게- ‘역사가의 시녀’라고 묘사했다. 돌이켜보면, 이 말에 담긴 노예근성과 그 성차별적 함의에 놀라게 된다. 남성 권력과 성취를 도와주는 말없는 조력자로서의 시녀와 마찬가지로, 역사가를 비롯한 이용자들이나 그 사회가 아키비스트에게 요구한 것은 역사연구에 대한 중립적이고도 조용한 시녀 역할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sup>4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아키비스트는 알게 모르게 그림자처럼 기록의 생명에 관여해왔고, 우리 사회의 기억과 망각에 개입해왔다. 더더군다나 현대 기록과 전자기록은 그 방대한 생산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전체 생산의 단지 1~2%만을 영구 보존할 아카이브즈로 선별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기억에 편입될 과거의 단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구축하려고 하는 아키비스트의 소임을 수동적 관리자쯤으로 대입시킬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 위에 정리 기술이라는 작업을 통해 기록을 구조화하고 편성한다. 기록은 그 자체가 기록일 수는 없고 역사 또한 그 자체가 스스로 역사가 되지 않는다. 기록은 아키비스트의 손길과 조직화의 과정을 거쳐 기록으로 태어나고, 다시 연구자와 이용자의 손에 의해 해석되고 이해된다. 그 조직화에는 이용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

---

49) Terry Cook, "Remembering the Future: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in *Archives,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Essays from the Sawyer Semina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2005, p. 170.

일관성을 위해 원질서를 채택하고, 출처를 존중하는 표준에 맞추어 기록을 구조화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기억에 가장 가깝게 "재현"해 내는 것이다.

고의적이지 않았더라도 아키비스트는 평가 선별을 통해 기록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자신의 지식 배경과 전문성 정도에 따른 기록 분류와 정리 기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주관을 재현한다. 객관성의 신화에 매몰된 기록관 환경에서는 전문성이라는 구실로, 표준이라는 도구로, 이러한 아키비스트의 결정과 작업을 은폐한다.

아키비스트의 기록 기술과 표준이라는 평균치의 가설을 통한 기억 원형의 재현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록은 결백한 증거라기보다는 사회적 권력을 통해 남겨지는 것이다. 객관성, 중립성과 같은 기록관의 낭만적인 이상주의나 절대성에 의탁하기 보다는 아키비스트가 사회 기억과 기록 이용자 사이의 인터페이스임을 받아들이고, 이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기록하여 남기고 공유하며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기록물에 대한 우리의 극도의 친절 혹은 불친절이 또 다른 뜻이 될 수도 있다.

## 참 고 문 헌

- 오동석, 『기록관의 국가·사회적 역할-민족주의·초민족주의와 집단적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8
-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 1999, 기억의 공간, 변학수 외 옮김, 경북대 출판부, 2003
- Terry Cook, "Remembering the Future: Appraisal of Records and the Role of Archives in Constructing Social Memory," in *Archives, Documentations,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Essays from the Sawyer Semina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 \_\_\_\_\_,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998
- \_\_\_\_\_, "The concept of the Archival Fonds: Theory, Description, and Provenance in the post-custodial era," in *The Archival Fonds: From Theory to Practice*, ed. Terry Wastwood, Ottawa, BCA, 1992
- \_\_\_\_\_, "From Information to Knowledge: An Intellectual Paradigm for Archives," *Archivaria* 19, 1984
- Jacques Derrida, *Archives Fever: A Freudian Im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Drauwe Draaisma, *Metaphors of Memory*, Historische Uitgeverij, 1995, 기억의 메타포, 정준형 옮김, 에코리브르, 2006
- Wendy Duff and Verne Harris, "Stories and Names: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Archival Science* 2, 2002
- Wendy Duff and Kent Haworth, "Advancing Archival Description: A Model

- for Rationalizing North American Descriptive Standards," *Archives and Manuscripts* 25, 1997
- Patrick Geary, *Phantoms of Remembrance*, Princeton, 1994
- Patrick Geary, "Medieval Archivists as Authors, Social Memory and Archival Memory" in *Archives, Documentations, and Institutions of Social Memory: Essays from the Sawyer Semina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2005
- Carolyn Hamilton ed., *Refiguring the Archive*, Kluwer Academic Public Publishers, 1998
- Margaret Hedstrom, "Archives, Memory, and Interfaces with the Past," *Archival Science* 2, 2002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5489-1(국제 표준화 기구의 국제 기록 관리 표준), 2001
- Hilary Jenkinson, *A Manual of Archival Administration*, 1922
- Harvey J. Kaye, *The Powers of the Past: Reflections on the Crisis and the Promise of History*, 1991, 과거의 힘: 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오인영 옮김, 삼인, 2004
- Eric Ketelaar, "Archivaliz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7, 1999
- Eric Ketelaar, "Tacit Narratives: The Meaning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2001
- Reinhart Koselleck, *Vergangene Zukunft zur Semantik Geschichtlichen Zeiten*, 1979, 지나간 미래, 한철 옮김, 문학동네, 1998
- David Lowenthal,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 한명숙 옮김, 개마고원, 2006
- Michelle Light and Tom Hyry, "Colophons and Annotations: New Directions

- for the Finding Aids," *The American Archivist* 65, 2002
- Heather MacNeil, "Picking our Text:: Archival Description, Authenticity, and the Archivist as Editor," *The American Archivist* 68, 2005
- Tom Nesmith, "Still Fuzzy, but More Accurate: Some Thoughts on the "Ghosts" of Archival Theory," *Archivaria* 47, 1999
-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Routledge, 1982,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외 옮김, 문예출판사, 2009
- Trudy H. Peterson, 민족주의와 국립기록보존소에 관한 불쾌한 진실, 이상민 옮김, 『기록학연구』 4, 2001
- Christopher J. Prom, "Optimum Access? Processing in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73, 2010
- Don Tapscott and Anthony D. Williams, *Wikinomics*. 위키노믹스, 윤미나 옮김, 21세기 북스, 2007
- Cass R. Sunstein, *Why Societies Need Dissent*,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박지우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09
- John Schwartz and Terry Cook, "Archives, Records, and Power: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 2002
- Richard Stapleton, "Jenkinson and Schellenberg: A Comparison", *Archivaria* 17, 1983
- Howard Zinn, "Secrecy, Archives, and Public Interest," in *The Howard Zinn Reader*, Seven Stories Press, 1997

## ABSTRACTS

### The Representation of Memory and New Directions of Archival Description Discourse

Jo, Minji

This paper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archives by exploring the concepts and meaning of archivist and archival description. The author considers the metaphor of archives as memory and relates our understanding of creation, arrangement, preservation, description, and use of records and archives. The author argues that archivists demonstrate their knowledge and background when they organizing and preserving records and archives.

#### Key words:

archive, archives, memory, remembrance, past, representation, archival arrangement, archival description, archivist, subjectivity, authenticity, open, sharing